

대학등록금 사립대만 올라

전년대비 '09년 대학등록금 인상율 0.5% 이내

국·공립대 4,169천원(0%) 사립대 7,420천원(0.5%)

구분	전체평균		일반대		교육대(각종대)		사립대	
	'08	'09	'08	'09	'08	'09	'08	'09
국·공립대 (인상율)	4,169.0	4,169.0 (0%)	4,269.8	4,321.3 (1.2%)	2,934.6	2,983.6 (1.7%)	3,436.4	3,661.5 (6.6%)
사립대 (인상율)	7,380.3	7,419.4 (0.5%)	7,387.0	7,435.2 (0.7%)	5,285.7	5,322.4 (0.7%)	7,224.8	7,077.3 (↓2.0%)

대학유형별 등록금 현황 (단위: 천원)

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742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대학 중 일반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432만원, 산업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366만원, 교육대학은 298만원이었으며, 사립대학 중 일반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744만원, 산업대학의 등록금은 708만원, 각종대학은 53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 등록금 현황을 보면 국·공립대 및 사립대 모두 의학계열의 등록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등록금 현황을 살펴 보면, 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영남대 제2캠퍼스가 1,04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캠퍼스는 의과대학만 있는 캠퍼스로 타 대학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해 살펴

순위	학교명	등록금
1	영남대 제2캠퍼스	10,406
2	대구가톨릭대 제3캠퍼스	9,970
3	가톨릭대 성의교정	9,458
4	영지대 자연캠퍼스	9,375
5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8,999
6	울지대 대전캠퍼스	8,883
7	이화여대 본교	8,791
8	추계예술대 본교	8,752
9	성명대 천안캠퍼스	8,670
10	숙명여대 본교	8,651

등록금 순위표 (단위: 천원)

패보면, 국·공립대학의 경우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628만원, 서울대가 608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가 879만원, 추계예술대학교가 825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공시 추진, 등록금 납부 제도 개선,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국가장학금의 확대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경감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기사 보여주길



인천광역시 교육감 나근형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육계에 오래도록 몸담아 왔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경력과 그들의 올바른 판단을 등에 업고 발행하는 교육연합신문은 현장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들, 현장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교육행정과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인사들에게 유익한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기사를 통해 교육전문지의 중심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대학 등록금의 인상폭이 사립대만 일부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09년 대학 등록금 현황 정보공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09.4기준) 전년대비 '09년 대학등록금 인상율이 0.5%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 전체 평균등록금은 '08년과 동일한 4,169천원, 사립대 전체 평균등록금은 '08년 7,380천원보다 0.5% 인상(40천원)된 7,420천원으로 나타났다.

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대학들이 '09학년도 대학등록금을 동결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지난 12월 5일 18개 주요대학 총장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어려운 국가경제 사정에 대한 대학의 이해와 이에 따른 대학의 '09년 등록금 동결을 협조요청 하였다.

금년 대학 등록금(본?본교 통합) 내용에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417만원, 사립

본사사령

편집국/ 기자 권기호
편집국/ 기자 강내영
편집국/포천주재 이경태

지역본부
광주취재본부장 한승훈

2009년 5월 18일자
편집차장 양원석

교육연합신문

EduYonhap.com

발행인/편집인 한승균

우402-835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4-4 4층
구독문의/대표번호 (업무국) 032-433-1633 (편집국) 032-433-4633
FAX 032-433-5633 광주지국본부 062-653-1996
포천지사 031-542-8353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구독료: 한달 10,000원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인친0600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개인별 '평생학습계좌' 생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학습비 지원도

웹사이트에 개설된 '학습계좌'를 통해 자신의 평생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계좌제'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공포됨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절차 등을 명시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평생학습계좌제란 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계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복지관이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그 결과가 자신의 학습계좌에 자동 입력돼 이를 토대로 학력인정, 자

격인정을 받을 수 있고 경력관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수강한 프로그램의 영역별, 수준별 학습이력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단, 교과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프로그램만 계좌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이 제도는 경기도 이천, 대전 대덕, 부산 사상·연제·진구, 충북 청주, 전북 군산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실시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계좌에 등록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인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호 기자

사립대학 "나 떨고있니?"

금년 11월 부실 사립대학 최종 판정 7일 교과부 "대학선진화위원회" 개최

부실한 사립대학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할 방침이어서 각 대학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관계자, 교육계, 산업계 인사 등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2012학년도 이후 학령인구 감소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대학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금년 6월까지 (부실대학) 판정기준을 심의하고, 현지 실

태조사를 거쳐 11월에는 최종 부실대학을 판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부실 사립대학 증가는 고등교육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4년 내 학생수 감소로 인한 경영상 위기는 현실화 될 것"이라며 "독자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부실 대학의 경우에는 합병 및 폐교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위원회가 부실 사립대학 판정기준, 구조조정 방안 마련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며, 이를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정원이 미달된 대학은 347개 학교 중 27개교로 7.8%의 비중을 보였다.

특히 전북 남원 서남대의 경우 총 모집인원 2070명 중 447명만 입학해 충원율이 22.1%에 그쳤다.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에 대해 재정지원을 줄여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승우 기자 ssw@eduyonhap.com

연구관리전문가(PM)제도 발전방향 공청회 개최

연구사업 관리를 앞으로는 우수한 민간전문가가 도맡아 수행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위원장 강태

진)는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전문가(Program Manager)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5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PM 제도'는 연구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가인 Program Manager를 두고 프로그램 과정의 일부 혹은 전체 운영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경태 기자

영어 완전 정복을 위한 ECI 영어 캠프

ECI에선 꿈이 현실이 됩니다! Your dreams come true in ECI

■ TOEFL 인문기반 ■ TOEFL 영문기 ■ TOEFL RIT / TOEIC 시험기반 ■ 문법인기 우수형 강사진 ■ 철저한 1:1 맞춤수업

ECI에선 꿈이 현실이 됩니다!

ECI 캠프 영어 학습 효과의 특징

- 철저한 1:1 맞춤 수업
- 영어회화 실용성 강화
- 영어회화 실용성 강화

수업시간

- 1:1 맞춤 수업
- 1:1 맞춤 수업
- 1:1 맞춤 수업

ECI 캠프 영어 학습 효과의 특징

- 1:1 맞춤 수업
- 1:1 맞춤 수업
- 1:1 맞춤 수업